

#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6 >



梁 啓 超 著  
沈 暁 俊 譯

## 第 2 章 尙 書

尙書는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先秦 以前에는 다만 「書」라고 부르다가 漢나라 初期에 비로소 「尙」字를 덧붙혔다. 이에 관한 問題는 가장 複雜하다. 古來로 僞作을 가려내는 作業이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없었다. 漢나라 初期에 伏生이 二十八篇을 傳해 온 以後 계속 六次나 시끄러운 事件이 發生했다. 第一次은 漢나라 景帝·武帝間——或은 漢宣帝時라는 말도 있다——河內의 女子가 泰誓 세篇을 얻은 것이다. 第2次는 劉歆의 말에 依하면 武帝末에 魯나라 恭王이 孔子의 壁에서 古文尙書를 얻었는데 孔安國이 읽어 보니 伏生の 것에 比하여 16篇이 더 많았다. 第3次는 漢나라 成帝때에 張霸가 102篇을 僞造한 것이다. 第4次는 東漢때에 杜林이 西州에서 漆書尙書를 얻은 것이다. 第4次는 東晉初에 梅賾이 尙書 58篇과 孔安國傳을 바친 것이다. 第6次는 南朝 齊나라의 建武연간에 姚方興이 大筋頭에서 舜典을 얻은 것인데 이는 舊文에 비해 28字나 많았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것은 當時에 곧 發覺되어 僞造者들의 弄奸임을 알아 냈고, 어떤 것은 千年 或은 百年이 지난 뒤, 여러 學者들이 辨僞·審判을 해서 비로소 最後의 斷定을 지었다. 唐初에 孔穎達이 九經正義를 짓고 陸德明이 經典釋文을 만들때 모두 梅賾의 58篇을 引用한 이래로 줄곧 清末에 이르기까지 歷代로 모두 寶典으로 取扱되어 왔다. 科學에서 出勞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萬의 하나라도 감히 無視치 못했다. 이 책의 힘은 一切의 經典을 超越하는 것이었다. 中間에 비록 수 많은 強力한 攻擊과 判決까지 받았으나 死刑宣告의 帝王과 宰相들의 비호를 입어 始終 頑強하게 抵抗 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책을 두고 얘기하려면, 최대한의 精神을 쏟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지금 감지 않은 여러가지의 篇目을 아래에 든다.

伏生이傳한 今文 28篇	孔安國이傳한 古文 57篇	梅賾이傳한 僞古文 58篇
堯典	堯典	堯典
	舜典	舜典
汨作	堯典下는 半 堯方興 興으로나누고篇 首에 20字를붙임	
九 共(計9篇)		

大禹謨	大禹謨	大禹謨
皋陶謨	皋陶謨	皋陶謨
堯 誓	堯 誓	堯 誓 (皋陶謨를 下半) 益稷으로나눔
禹 貢	禹 貢	禹 貢
甘 誓	甘 誓	甘 誓
五子之歌	五子之歌	五子之歌
胤 征	胤 征	胤 征
湯 誓	湯 誓	湯 誓
	仲虺之誥	仲虺之誥
	伊 訓	伊 訓
	太甲(計 3篇)	太甲(計 3篇)
	咸有一德	咸有一德
	典 寶	
	伊 訓	
	肆 命	
	原 命	
盤 庚	盤庚(計 3篇)	盤庚(計 3篇)
	說命(計 3篇)	說命(計 3篇)
高宗融日	高宗融日	高宗彤日
西伯戡黎	西伯戡黎	西伯戡黎
微 子	微 子	微 子
뒤에 河內女子가 泰誓 3篇을 얻어 또한 伏生之 今文 속에 덧붙여 넣	泰誓(計 3篇)	泰誓(計 3篇)
牧 誓	牧 誓	牧 誓
	武 成	武 成
洪 範	洪 範	洪 範
	旅 葵	旅 葵
金 縢	金 縢	金 縢
大 誥	大 誥	大 誥
	康 誥	康 誥
	酒 誥	酒 誥
	梓 材	梓 材
	召 誥	召 誥
	洛 誥	洛 誥
	多 士	多 士
	無 逸	無 逸
	微子之命	微子之命

君 爽	君 爽	君 爽 蔡仲之命
多 方	多 方	多 方
立 政	立 政	立 政 周 官 君 陳
願 命	願 命 後人(願命下半으로 아니)康王之誥로 삼고 또 덧붙임	願 命 康王之誥
	畢 命	畢 命 君 牙 罔 命
費 誓	費 誓	呂 刑
呂 刑	呂 刑	文侯之命
文侯之命	文侯之命	費 誓
秦 誓	秦 誓	秦 誓

伏生이 傳한 것은 本來 다만 28篇 뿐이었다. 그러나 史記·漢書 이래 모두들 29篇을 傳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河內女子가 얻은 泰誓도 伏生에게 붙인 것이다. 孔安國이 孔子의 壁속에서 얻은 것은 다만 45篇 뿐이었다. 그러나 九共을 9篇으로 나누었고 盤庚·泰誓를 各各 3篇으로 나누었으므로 57篇으로 變했다. 그러나 實은 孔安國이 古文尙書를 과연 얻었는지조차 아직 問題이다. 아래에서 佚書 16篇을 辨別한 結果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이 책의 問題가 이처럼 複雜하고 研究를 하자면 참으로 번거롭기때문에 個別的인 問題로 分析하여 研究치 않을 수 없다. 現在, 다섯개의 重要한 問題를 꼬집어 내겠다. 첫째는 東晉에서 늦게 나온 古文尙書와 孔安國傳의 眞僞問題이고, 둘째는 佚書 16篇의 眞僞問題이고, 셋째는 泰誓의 眞僞問題이고, 넷째는 今文尙書 28篇의 年代問題이고, 다섯째는 書序의 眞僞問題이다. 張弼가 僞造한 102篇은 當時에 이미 眞짜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며, 杜林이 얻은 漆書尙書는 바로 馬融·鄭玄이 注를 단 것인데 今文과 비슷하므로 지금은 자상히 말하지 않겠다.

A. 東晉에서 늦게 나온 古文尙書와 孔安國傳의 眞僞問題.

現在 通行되고 있는 十三經註疏속의 尙書 58篇은 數百年동안 數百名의 研究를 거쳐 이미 그 性質은 세가지로 斷定지을 수 있게 되었다. 첫째, 伏生이 傳한 今文 28篇의 篇名과 같은 것은 眞짜이다. 둘째, 舜典(篇首의 28字는 除外) 益稷·康王之誥는 모두 今文으로부

터 뽑아 낸 것으로 모두 眞짜이다. 셋째, 그 나머지 25篇은 모두 僞書이다. 今文 28篇은 어찌하여 眞짜임을 認定 할 수 있는가 함은 넷째의 問題를 얘기할 때까지 保留해 둔다. 舜典 益稷은 모두 僞造者가 堯典 泉陶謀에서 뽑아 낸 것으로, 泐코 孔安國이 原來 傳한 舜典 棄稷은 아니며, 康王之誥는 馬融·鄭玄등이 願命을 좇아 뽑아 낸 것으로 孔安國이 原來 傳한 康王之誥는 아니다. 다만, 뽑아 내게 된 원칙이 眞짜이므로, 뽑아 낸것도 眞짜이다. 남아서 25篇은 北宋 以前에는 결코 아무도 懷疑한 일이 없었지만 南宋 初년에 와서야 비로소 吳棫이 大膽하게 事端을 이르렀으며 그 후로는 不斷히 研究者들이 마침내 나와 淸初의 群儒들이 4年 동안의 縣案을 判決했다. 同時에 孔安國傳도 孔安國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증명되었다. 지금 이와 같이 辨僞한 者들을 五期로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第1期(南宋)	第2期(元)	第3期(明)	第4期(淸)
吳 棫 朱 熹	郝 經 吳 澄	梅 應 胡 應麟	閻 若 璩 姚 際 恒 惠 棟 崔 述 程 廷 祚

最初에 事端을 이르킨 것은 吳棫이었다. 그러나 그의 理由는 極 粗雜淺薄한 것으로 다만 文章上으로 볼 때 이 25篇은 三代之 氣品과 비슷하지 않는 것이었다. 吳棫이 이러한 事端을 提起한 뒤 朱熹가 따라 올라가면서 같은 理由로써 明白하게 指摘하였다. 여전히 25篇이 僞書라고는 敢히 斷定하지 못했다. 다만 孔安國傳에 대하여 肯定的인 判決을 내렸을 뿐이지만 아무튼 다 이러한 見識이었다. 郝經과 吳澄은 더욱 大膽하게 僞作自體를 攻擊하였으며 秋毫도 遲滯나 疑心은 나지 않았다. 그들 네 사람은 專門의으로 한 책을 지어 辨僞하지는 않고 다만 文集·語類·筆記 중에 極 概括의으로 簡單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影響은 그리 크지 못했다. 最初로 專門의인 한 책을 지어 古文尙書를 辨僞한 者는 梅應麟이다. 그는 尙書考異와 尙書譜를 著述해서 비로소 25篇과 孔安國傳은 僞書라 함을 비교적 明白히·宣布하였다. 胡應麟의 四節正譌도 일찌기 提起하였지만 異彩로운 斷案은 없었다. 閻若璩에 이르러서야 僞古文尙書를 爲해서 辯護하는 입을 비로소 틀어 막았고 僞古文尙書를 辨僞한 諸家의 大成을 모았다. 그의 古文尙書疏證은 참으로 不朽의 著作이며 그의 地位는 淸初 學界에서 참으로 第一流였다. 同時代 사람인 姚際恒이 지은 古今僞書考도 尙書에 대해서 같은 結論

을 얻었다. 그밖에 尙書通論을 著述했는데 哀惜하게도 佚失되었다. 그들은 約束이나 했듯이 著書를 가지고 辨僞하였는데, 뒤에 對面하고 나서야 비로소 彼此的 見解가 一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 亦是 學術史上的 한 興味있는 일이다. 이 以後부터 尙書를 가려 내는 諸家들은 그에 대해서 다만 補充 或은 發揮하였다. 惠棟의 古文尙書考같은 것은 이야기는 極 簡潔하며 결가지가 없지만, 閻若璩의 不足한 論을 補充해 주고 또한 쉬이 읽는다. 程廷祚의 晚書訂疑와 崔述의 尙書辨僞도 같은 것이다. 이 밖에도 虛多한 文集이 있는데 閻氏의 說에 대하여 혹은 빠진 곳을 補充하고 혹은 그릇된 곳을 고치어 거의 攻擊할 틈이 없게 했다. 그들이 經營界에서 차지하는 地位가 높았고 一般學者들은 모두 尊重히 여기고 있었으므로 僞古文尙書와 僞孔安國傳을 갖다가 死刑宣告할 수 있으며 뒤에 尙書를 註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뜻에 따라서 今文과 古文을 分離하였다. 예컨대 江聲의 尙書集註音疏와 孫星衍의 尙書今古文註疏와 段玉裁의 古文尙書撰異와 劉降祿의 尙書今古文集解등은 모두 今文과 古文을 한데 섞지 않고 있다. 그들이 아직 事業을 決定하기 이전 被告를 辯護해준 한 辯護士, 즉 毛奇齡이란 사람이 있었다. 閻若璩와 同時人이지만 年齡이 좀 많았는데, 그는 極 閻氏가 古經을 攻擊하는 것을 極 不滿스럽게 여겨, 몇 차례나 面前에서 論駁하였다. 또한 專門의인 著書——“古文尙書冤辭”를 지어 古文尙書證에 對抗하였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被告의 罪狀이 顯著하여 確實히 死刑處分을 받을만 하였으며 조금도 억울할 것이 없었으므로 비록 毛奇齡처럼 有名하고 힘을 기울인 辯護士가 있었지만 生命을 救出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淸初로부터 淸末에 이르기까지 오직 수 많은 사람들이 閻氏說을 돕는 證據를 찾아서 事實을 決定했을 뿐이지 毛氏를 돕는 證據를 찾아 事實을 顛據한 것은 없었다. 다만 光緒年間에 吳光耀가 古文尙書正解를 著述하고 또한 洪良品이 尙書古文辨惑을 著述하여 墓속에서 死刑囚의 해골을 發掘하여 살을 불이고 가죽을 써우고 또 옷을 입혀서 다시 사람들을 소란시키고 世上을 眩惑시키려고 했지만 이속에는 어디 効驗이 있을게 무엇이냐? 以上은 僞古文尙書와 僞孔安國傳에 대하여 사람들이 懷疑하기 시작할 때부터 最後로 事實을 決定하기까지의 大略을 얘기한 것이다.

이 案件의 書類는 혹은 專門書籍으로 되어 있고 혹은 單篇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數百種 百數十萬字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이 事實의 全貌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자기가 書類들을 모아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大綱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尙書가 漢으로부터 晉에 이르기까지 傳

援된 차례에 대하여 于先 한번 말하고 나서 다시 事實을 喝破하게된 證據에 대해서 말하고저 한다.

史記는 尙書의 傳授에 대하여 가장 일찍 收錄하였고 漢書도 이어서 같이 말하고 있는데, 모두 孔子以前의 書는 百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遠古의 事情에 대하여 記述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孔子에 이르러 처음으로 刪定하여 唐虞로부터 秦穆公에 이르기까지 도합 百篇을 남겼으며 그 밖에 또 序를 지어 作者의 뜻을 說明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秦始皇이 焚書할 때 濟南의 伏生이 홀로 尙書를 壁속에 감장하였다가 漢이 이어나자 伏生은 29篇을 찾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亡失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뒤에 와서 僞古文尙書의 孔安國序에서 하는 말은 또 이와같지 않았다. 즉 秦이 焚書할 때 孔子의 後人이 壁속에 尙書를 감장했지만 漢나라가 일어나자 尙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때 濟南의 伏生은 이미 나이 90이라 그의 本經을 잃고 29篇만을 口誦하였다고 말한다. 이 두 說 가운데 어느것이 신빙할만한 것인가를 決定하기가 極 어렵다. 그러나 尙書가 傳해진 것은 伏生으로부터임은 定論할 수 있다. 漢나라 朝廷에서 博士 열넷을 세웠다. 尙書는 歐陽氏와 大小의 夏侯였는데 모두 伏生으로부터 傳해진 것이다. 그래서 漢書藝文志에는 『經이 29卷』이라 하였고 『大小의 夏侯 二家와 歐陽의 經이 32卷』이라고 註하고 있다. 이로부터 伏生은 29篇만을 傳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本來는 28篇 뿐이었으니 漢儒가 늦게 나온 泰誓 1篇도 덧붙였으므로 29篇이라 흔히 말해지는 것이다.

西漢末에 이르러 劉歆이 中秘의 藏書를 校하면서 尙書古文經 46卷 卽 57篇을 發見하였다. 전하는 말에 依據하면 武帝末期에 魯共王이 孔子宅을 헐어 부수면서 古文尙書(其他 數 많은 책과)를 얻었다. 孔安國이 이를 갖다가 伏生の 29篇과 比較해 보면 16篇이나 많았다. 이 16篇의 篇名은 舜典·汨作 九共·大禹謨·棄稷 五子之歌·嗣征·湯誥·威有德·典寶·伊訓·肆命·原命·武成·旅獎異命 등이다. 그 目錄은 鄭玄의 尙書註속에 실려 있다. 九共에는 9篇이 있으므로 24篇으로 나누기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漸次 散失되었으나 馬融·鄭玄은 아직 약간은 보았으므로 佚書라고 불렀다.

現在 通行되고 있는 十三經注疏 중의 古文尙書는 어떤 來歷을 가졌는가. 위에서 든 孔安國의 序에 依據하면 이렇다. 『魯나라 共王이 孔子의 옛집을 헐고……先人들이 감장했던 古文으로 된 虞·夏·商·周의 書를 얻었다.……모두 科斗文으로 孔氏에 들려 보냈는데 科斗文은 廢止된지 이미 오래였으므로 當時의 사람들은 아는 者가 없었다. 伏生은 책을 가지고 文의 뜻을 考證分析했다. 解讀할 수 없는 것을 定하여 隸書로, 다시 竹簡에 이를 썼다. 伏生은 것에 25篇이 增加되었다.

伏生の 것은 또한 舜典을 堯典에 合하였으며 益稷을 皋陶謨에 合하였으며, 盤庚의 三篇을 하나로 合하였으며, 康王之誥를 顧命에 合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 책이 나왔으니 序와 함께 모두 59篇인 것을 46卷으로 만들었다. ……詔命을 받아 59篇에다 傳을 지었다. ……序를 쓰는 것은 作者의 뜻이 소상히 보이게 하여 가까이 붙이는 것이 좋으므로 이를 끈어다 각각 篇首에 冠했다. 58篇을 定하는 일이 이미 끝났지만 마침 나라에 巫蠱事가 있어, 經籍이 길이 停息되어 다시 上聞하지 못했다』(實은 이 한 篇의 序는 假사이며 孔安國이 만든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다시금 말 하겠다). 西漢末에 劉歆이 學官에다가 古文尙書를 넣고져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東漢末에 馬融·鄭玄은 비록 古文家였지만 그가 註를 붙인것은 杜林이 傳한 古文尙書 29篇이고 또한 今文이 섞여 있다. 晉朝 秘府에 保存되고 있는 것은 古文尙書 經文이지만 永嘉의 亂離를 겪은 뒤 누구 하나 傳授한 일이 없어 그 內容이 劉歆의 본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東晉에 이르러 豫章 內史 梅賾이 비로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孔安國傳을 얻어 朝廷에 바치고, 또한 舜典 1篇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當時에도 이를 理解한 者가 없었다. 南齊建武年間에 姚方興이 大紆頭에서 舜典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奏上하였는데, 馬融·鄭玄이 註를 단 것에 比하면 28字나 많다. 그때 비로소 國學에 古文尙書가 正式으로 들게 되었다. 이 뒤로 南朝에는 漸次 古文을 傳하는 者가 있게 되었다. 비록 專門家는 없었지만 馬融 鄭玄의 註는 一般들에게 重視되지 아니 하였다. 唐初에 이르러 陸德明·孔穎達은 古文尙書와 孔安國傳을 認定하여 『辭가 豊富하고 具備되었으며, 義가 弘博하고 優雅롭다. 그러므로 거듭 읽어도 싫지 않으며, 오래될 수록 더욱 빛난다』라고 말했다. 한 사람은 이를 위해 釋文을 만들어 두고 한 사람은 이를 위해 正義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부터 清末에 이르기까지 科擧로 立身出勢하려는 사람은 모두 陸德明과 孔穎達의 說을 遵守하여 古文尙書를 계속 써 왔다.

여러 사람들의 新陳代謝하는 事情을 살펴 보면 오히려 참으로 재미가 있다. 馬融·鄭玄의 註가 盛行되자 歐陽과 大小 夏侯의 傳이 亡失되고, 梅賾의 孔安國傳이 盛行되자 馬融·鄭玄의 註가 亡失된다. 두번의 變化로 尙書의 참다운 모습은 가려졌다. 現行되는 十三經注疏 중의 古文尙書는 곧 梅賾이 刊친 책으로 孔安國 馬融·鄭玄이 본 책과는 같은 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같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僞造者가 생선 눈알을 마치 구슬(珠)과 같은 것으로 뒤섞어 놓는 것이다. 南宋이후 先哲의 努力을 거쳐 이 어마 어마한 詐僞가 밝혀졌다. 밝혀진 證據는 實로 날날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그 要點만을 끄집어 말할 수 밖에 없다.

1) 篇名이 같지 않은 것 : 本章의 앞에 나온 篇目表를 보면 孔安國과 梅賾이 傳한 古文尙書는 篇目이 같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發見하게 될 것이다. 孔安國本에 있는 것으로 梅賾本에 없는 것은 汨作·九共·典籍·肆命·原命 등이 있다. 梅賾本에 있는 것으로 孔安國本에 없는 것은 仲虺之誥·太甲·說命·微子之命·蔡仲之命·周官·君陳·康王之誥·君牙·罔命 등이 있다. 글자가 若干 틀려 있는 것으로는 孔安國本の 棄稷을 梅賾本은 益稷으로 했고 孔安國本の 嗣征을 梅賾本은 胤征을 했다. 이것으로써 梅賾本은 確實히 孔安國本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2) 孔安國本은 東漢末에 이르러 이미 失書가 된 것 : 孔安國의 古文尙書는 劉歆이 한번 말한바를 除外하고는 傳授된 사람이 없다. 東漢末에 이르러 馬融 鄭玄은 表面으로는 古文을 傳授하였으나 實은 杜林이 얻은 28篇을 傳했을 뿐, 伏生の 今文과 別差 없다. 28篇以外的 篇名과 殘句는 馬融 鄭玄과 許慎의 說文에 引用된 것은 모두 佚書라 부르고 있다. 萬一 이러한 古文家들이 본 尙書가 바로 뒤의 梅賾이 傳한 尙書였다면 왜 책이 아직 存在하고 있었는데 佚書라고 말했을 것인가? 이것으로써 東漢末의 諸儒들은 모두 뒤의 梅賾이 傳한 古文尙書와 孔安國傳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文章이 너무 틀리는 것 : 伏生이 傳한 今文 28篇은 梅賾本에도 있다. 우리가 읽어보면 眞實로 『周誥와 殷盤은 文章이 어려워 읽기 어렵다』 科擧時代의 어린이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를 잡고 덤벼 들었지만 별수가 없었다. 언제나 손바닥을 내어 밀고 선생의 회초리를 맞아야 했었다. 그러나 五子之歌·湯誥·說命…등 篇을 읽게 되면 文字가 쉬워서 줄줄 읽어 내려 갈 수 있어서 마치 特赦라도 받은 기분이 된다. 五子之歌의 時代는 湯誓의 앞이며 湯誥로부터 說命까지의 諸篇의 時代는 盤庚의 앞이었다. 時代가 이른 것이 도리혀 읽기 쉬우며 늦은 것이 도리혀 읽기 어려울 까닭이 없는 것이다. 仲虺之誥와 湯誓는 同時의 것이며 武成과 牧誓도 同時의 것이고 周官·君陳과 多士·多方도 同時의 것이다. 더욱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울 까닭이 없는 것이다. 文體를 가지고 論할 때 참으로 奇怪하다. 그러므로 最初에 懷疑한 吳棫 朱熹는 곧 이 점으로부터 出發하여 급기야 28篇以外的 것은 僞書라 함을 證明했다. 그 책 머리의 孔安國序도 文體가 漢朝의 氣風과 비슷하지 않으니 응당 假짜이다.

4) 梅賾本은 僞作한 痕跡이 뚜렷한 것 : 僞作은 根據 없이 架空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眞書를 剽竊하거나 잘라 붙이거나 갈아 바꾸거나 덧붙이거나 하여 讀者로 하여금 疑心하지 못하게 한다. 梅賾本 古文尙書는 殆

半이 모두 이와같이 根據가 있다. 人心惟危, 道心惟微惟精惟一, 允執厥中이란 十六字는 荀子와 論語에서 剽竊해 왔음은 앞서 總論 第4章에서 이미 말한바 있다. 그 나머지 各篇 各句의 出處는 거의 모두 索出해 낼 수 있다. 明人 梅賾의 古文尙書譜와 淸人 閻若璩의 古文尙書疏證 및 淸人들의 文集에서 이미 자상히 言及한바 있다. 梅賾本은 確實히 古書를 採綴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淸初 諸儒로부터 梅賾本이 僞作이라 함이 밝혀진 뒤 一般은 모두 梅賾本을 僞古文尙書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이책 가운데 今文과 같은 28篇을 除外한 나머지는 어느 때 누구에 依한 僞作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定論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梅賾이 東晉人이고 또 이책은 魏人 王肅으로부터 傳해 내려 온 것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王肅의 僞造로 斷定되고 있다. 王肅이 왜 僞造했을까? 그는 鄭玄과 맞지 않았으므로 證據를 만들어 내서 鄭玄의 經說을 壓倒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大槪 별다른 問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 通行되고 있는 古文尙書가 과연 梅賾이 傳한 것인지 하는 것과 또 과연 王肅이 僞造한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다만 研究해 볼 일이다. 淸儒로서 最後로 尙書의 僞作을 가려낸 사람은——程廷祚는 晚書訂疑에서 많은 證據를 蒐集하여 王肅이 僞造하고 梅賾이 傳한 僞書는 벌써 散佚되었고 現行本은 大略 齊梁사이에 비로소 나온 것으로 梅賾과는 百年의 距離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證據를 支持한다. 南齊 明帝 建武연간에 姚方興이 堯典의 『愼徽五典』以下를 잘라서 舜典으로 삼고 『曰若稽古帝舜 曰重華協於帝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稽古하는 이가 帝舜이다. 重華하여 帝堯에게 協하다. 濬哲·文·明·溫·恭·允·塞하다. 그 玄德이 升聞되어 이에 位로써 命 받다.)란 28字를 僞造하여 篇首에 덧붙였다. 이 28字는 비단 今文本에 없을뿐 아니라 梅賾도 보지 못했다. 아마 이러한 事情은 이것 하나 뿐이 아닐 것이다.

## B. 佚書12篇의 眞僞問題

위에서 劉韻의 말에 依據하여 漢武帝에 孔安國이 孔子의 舊宅 壁속에서 얻은 古文尙書는 伏生이 傳한 것보다 16篇이나 많다고 이야기 한바 있다. 이 16篇은 도대체 僞書인가 아닌가? 過去로부터 卽우 모두 眞짜로 認定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僞古文을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16篇이 篇目만 있을뿐 本文이 없다는데 대해서 아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本文章이 이미 亡佚되었으므로 從前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서 懷疑한 일이 없었다. 淸人 程廷祚, 劉逢祿, 邵懿辰과 康南海선생은 그런데 西漢에 무슨 古文經이 있었다는 것을 根本的으로 믿지 않았다. 이 16

篇이란 것은 더욱 말할것도 없었다. 이러한 見解도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劉歆이 學官에 古文經을 세우자고 (코스로 採擇하자고) 主張하였을 때 漢儒들은 이미 『尙書는 갖춰 있다』고 말했다. 當時에도 28篇의 今文以外에 또한 다른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믿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東漢 王充의 論衡에도 말하기를 漢儒들은 28篇으로써 하늘의 28宿에 按配하고 孔子가 意識的으로 이와 같이 配合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 後에 한편의 泰誓를 얻자 또 다시 28宿 밖에 北斗를 하나 덧붙인 것으로 여겼다. 이런 幼稚하고 우스운 思想은 漢儒가 『尙書는 갖춰 있다』고 믿는 精神을 充分히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만 古文을 爲해서 辯護하는 사람은 아직 이것은 今文家의 說法이니 根據가 되기엔 不足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 16篇이 疑心스럽다는 點을 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無妨할 것이다.

西漢에서 尙書를 講한 大師가운데의 첫째는 伏生이라 함은 앞에서 말하였다. 伏生은 歐陽生에게 傳해 주고, 歐陽生은 兒寬에게 傳해 주었는데 뒤에 歐陽과 大小夏侯의 三家는 모두 兒寬에게서 나왔다. 兒寬은 또한 孔安國의 가장 사랑을 받는 弟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둘째의 大師로는 兒寬을 밀지 않으면 안된다. 假使 孔安國이 과연 今文에 비해서 16篇이나 많은 古文尙書를 얻었고 또 과연 眞實로 傳注를 만들었다면 兒寬이 보지 않았을리가 없으며, 보았다면 傳述치 않았을리가 없다. 참으로 古文이 있었다고 主張하는 一般들은 孔安國이 兒寬에게 傳해 주지 아니하고 都尉朝에게 傳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古文家인 馬融·鄭玄 兩氏는 逸書 16篇은 師說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가 가장 疑心나는 곳은 이렇다. 史記에는 分明히 孔安國이 일찌기 죽었다고 말했다. 죽은 해를 따라 미루어 보면 武帝末期의 巫蠱의 일은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인데 僞孔安國序에는 巫蠱의 일 때문에 古文尙書를 朝廷에 아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魯共王은 分明히 漢武帝 初년에 죽었는데 漢志에서는 그가 武帝末에 孔子宅을 헐고 古文尙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문에 우리들은 孔安國이 일찌기 古文尙書에 註를 달았는지 하는 점과 또 古文이 今文보다 과연 眞實로 16篇이 많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懷疑치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劉逢祿과 康南海先生은 모두 16篇은 根本的으로 劉歆이 僞造한 것이며 原文이 없어진 것은 조금도 哀惜할것 없다고 말했다. 程廷祚의 晚書訂疑에서는 더욱이 16篇의 逸書가운데 漢儒에게 引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殘句를 갖다가 今文 28篇의 辭義와 비교해 보면 差가 너무甚하고 또한 可笑로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비단 梅賾이 傳

한 古文 25篇만이 後人이 偽造한 것이 아니다. 卽 이른바 孔安國傳의 眞古文 16篇도 반드시 眞짜는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 C. 泰誓問題

伏生이 傳한 今文本은 本來는 28篇뿐이었다. 漢나라 宣帝의 本始년간에 河內의 女子가 泰誓 한 篇을 얻어서 朝廷에 받치었으므로 뒤에 와서는 29篇으로 합쳐졌다. 古文尙書에도 泰誓가 있다. 그러나 隋書經籍志에서는 그것과 河內의 女子가 받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東漢末과 三國시대의 諸儒 즉 馬融·鄭玄·王肅 등은 모두 泰誓를 疑心하면서 그 年月과 書序가 같지 않으며 또한 字句도 左傳·國語·孟子등 書에 引用된 泰誓와 틀린다고 말했다. 그들이 疑心한 것이 河內女子가 받친 것인지 또는 古文尙書의 그 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篇이든 모두 믿을 수 없게 했다. 지금의 泰誓는 또 뒤에 나타난 가짜이다. 古書로부터 모아 엮은 眞泰誓라는 것도 반드시 眞짜라고는 할 수 없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古文尙書疏證에서 가장 分明하게 答辯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 D. 今文尙書 28篇의 年代問題

몇 차례의 陶汰를 거친 뒤 尙書는 다만 28篇만이 남았다. 28篇은 比較的 믿을 수 있다. 적어도 漢初에 傳해 내려온 것이니 孔子가 일찍이 본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承認하지 않을 수 없다. 堯典에 『曰若稽古帝舜』부터 『乃命以命』까지 28字를 除外하고서도 물론 뒤에 舜典은 堯典으로부터, 益稷은 皋陶謨로부터, 康王之誥는 顧命으로부터 쓰개 내기는 했다. 그러나 篇名은 비록 假짜일지라도 本文은 眞짜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28篇속에 包括하여 眞짜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들은 28篇을 眞짜로 認定하는가 그것은 28篇을 傳한 者가 伏生이었기 때문이다. 伏生은 秦始皇의 焚書時에 마침 壯年이었으므로 당연히 진짜의 尙書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漢初에 伏生이 그의 壁속에서 28篇을 얻은 것도 또한 당연히 壯年에 읽은 것일 것이다. 孔子가 書經을 刪定했다는 말은 비록 確實한 것은 아니지만 孔子는 如何든 書經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孔門 後學들이 이 책을 重視하는 것만 보더라도 明白하다. 孔子로부터 伏生에 이르기까지는 焚書나 禁書같은 暴政이 없었고 또한 마침 學術이 發達한 時代여서 尙書를 傳習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러니 亡佚이나 變亂같은 事情들이 發生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孔子가 일찍이 今文尙書 28篇은 이미 보았었다고 認定할 수 있는 것이다.

從前에 어떤 사람들은 28篇중의 金縢篇에 『가을에

穀食이 잘 익었다. 거두기 전에 하늘에서 큰 우뢰와 번개가 치더니 바람이 일어나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가 뽑혀졌다.……王이 郊外에 나가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꾸로 불어 벼가 모두 일어섰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처럼 事實과 距離 먼 얘기가 있는 것은 아마 史實로 믿을 수 없다고 懷疑했다. 그러나 實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만 當時 史官들이 史實이 아닌 것을 史實로 여기고 嚴格히 識別하지 못했음을 탓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은 뒤의 晉書·魏書와 아주 비슷한 것이다. 晉書에는 小說을 많이 끌어 썼고, 魏書에는 瑣聞을 멋대로 記錄하였다. 우리들은 다만 그들이 史料를 識別한 基準이 틀렸다고는 말 할 수 있지만 이 두 책이 唐太宗 魏收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金縢는 別문제가 없다. 神話삼아 보면서 이를 밀려다가 當時의 社會心理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篇을 除外하고서는 從前부터 懷疑받은 일이 없었다. 眞偽문제는 전혀 두고 전적으로 그의 年代를 研究해 보기로 하자.

28篇 가운데 앞에 있는 4篇——堯典(今本の 舞典을 包含함), 皋陶謨(今本の 棄稷을 包含함), 禹貢, 甘誓——은 전부 唐虞書라고 불리워지고 一般人들은 唐虞의 史官이 아니면 그렇게 잘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한 두 學者들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크나큰 懷疑를 이르렀다. 첫째, 堯典의 文體는 僞古文의 大禹謨·五子之歌에 比해서는 비록 古雅하지만 今文의 湯誓, 盤庚, 多士, 多方에 比하면 實은 읽기 쉽다. 唐虞의 比較的 앞선 文章이 오히려 文字가 쉬운데 殷周의 比較的 뒤진 文章이 오히려 어려워 읽기 어려울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分明히 湯誓 등 前의 時代가 堯典보다 이른 것이며, 堯典은 당연히 唐虞人의 作品이 아니다. 둘째, 禹貢에 記載된 地域은 꽤 넓다. 비록 遊牧時代의 人跡은 農業時代에 比하면 比較的 넓으므로 禹貢도 따라서 記載한 바가 많다고 말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殷民族의 活動圈은 겨우 黃河南北에 限定되었을 뿐이고 西周도 黃河流域에 限定되었을 뿐이다.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徐徐히 楊子江, 粵江의 流域에까지 擴充되었으며 비로소 交叉點등지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어찌하여 禹貢의 九州는 東周의 地域과 꼭 같으며 殷周와는 같지 아니한가? 地下에 資料가 있어 이를 發掘해 내어 研究하여 唐虞의 地域이 確實히 東周에서와 같았다 함을 證明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禹貢은 아무튼 東周의 地理書일 것이다. 셋째, 堯典에는 討論할 곳이 아직도 많다. 예컨대, 『蠻夷가 夏를 소란치다』든지 『金으로 贖刑하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夏는 뒤에 일어난 名詞이고 金屬貨幣는 周朝에 비로소 있었던 物體이

다. 그러니 당연히 堯舜時代의 책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거기에는 몇 곳에서 『中星』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비록 天文家는 아닐지라도, 夏小正에서 말하는 中星과 별로 距離가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夏小正은 洸코 夏朝의 書는 아니며 周人이 建寅한 曆이다. 그러면 堯典은 아마 周人이 追述한 말일 것이며 堯舜의 史官이 記錄한 것일 수는 없다. 將次 天文學者들의 研究를 거쳐 어느 날엔가는 이 說法에 대해 證明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이 一節은 마치 조금은 眞僞를 가린 문제 같기도 하나 其實은 年代를 考證한다는 문제인 것이다. 堯典의 첫 句節에 分明히 『曰若稽古帝堯(稽古하는 이가 帝堯이다)』라 하고 臯陶謨의 첫 句節에는 分明히 曰若稽臯陶(稽古하는 이가 臯陶이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堯舜의 史官이 記錄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後人들이 옛을 즐기며, 堯舜의 史官이 아니라면 그렇게 좋은 文章을 짓지 못 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억지로 堯舜史官이 만들었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억지로 堯典·臯陶謨·禹貢·甘誓를 虞夏書라고 말하면서 聖賢이 傳授한 心法을 받드려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其實은 우리들은 다만 그 篇의 첫 머리의 한 句에 根據하여 後人이 追述한 것으로 認定함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本來부터 堯舜의 史官이 지은 것이라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어찌 그것을 僞書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위에서 論證한 것은 이 四篇이 周人이 追求한 것이라 함을 證明하는 것이다. 時代를 2,000年 뒤로 옮기지만 하는 것이지 某篇이 僞書라고 指摘한 것은 아니다. 28篇에서 앞 4篇을 除外하고서 湯誓로부터 微子에 이르기까지 商書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收誓로부터 秦誓에 이르기까지는 周書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眞僞는 洸코 問題가 되지 않으며 年代는 從前과 같이 말할 수 있으니, 分明히 商周의 作品으로 看做된다.

### E. 書序의 問題

書序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存在하고 있으며 모두 一百首인데 每篇의 앞에 놓여 있으면서 그 篇을 지은 動機를 說明하고 있다. 그 體制는 詩序와 類似하다. 堯典序에는 『옛날 帝堯가 있었는데 聰明하고 文에 才質이 있어 天下를 빛내어서 王位에 推戴했으나 虞舜에 讓步하고 堯典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 百篇序는 종전부터 모두 孔子가 지은 것이라고 말하며, 本來는 한 篇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僞孔安國古文尚書에서는 孔安國이 各篇의 머리에 分置하였다 하고 있다. 伏生 의 今文 28篇은 뒤에 갑자기 29篇으로 變해졌다. 어떤 사람은 泰誓를 덧붙인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書

序를 덧붙인 것이라 한다. 이 까닭에 伏生이 孔子의 書序를 傳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모두 믿을 수 없다. 孔子 때에 書는 몇 篇이 있었으며 序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 또한 問題이다. 設使 書는 百篇으로 되어 있고, 各篇마다 모두 序가 있었다 하더라도 百篇序는 역시 當時의 書의 總數는 包含될 수 없다. 序以外的 篇名이 各 古書에 보이는 것은 한 물이 아니다. 禹誓 武觀 湯說 官刑 相年은 墨子에, 夏訓 伯禽 唐誥는 左傳에, 太戊는 史記에, 尹吉·高宗은 禮記에, 大戰·揄誥·多政은 尚書大傳에 보이고 있다. 尚書大傳은 이르기를 伏生에게서 傳해 내려 왔다고 하는데 書序의 篇目과 같지 않은가. 史記에 引用된 尚書의 許多한 篇目은 書序와 같다. 그런데 왜 한 篇이 더 많은가, 이것은 分明히 伏生이 書序를 傳한 것은 아니다. 書序는 史記를 베껴 쓰다가 偶然히 하나의 篇目を 남기었다. 本來 이것은 없었던 것이다.

詩經에는 序가 있는 것도 이미 상거운 일이다. 다만 詩는 본래 文學家들의 寄託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 本事가 무엇인지 쉬이 알 수 없다. 어떤 序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聯想을 준다. 그런데 書는 본래 紀事이니 文章을 보면 금방 明白해 지는데 무슨 필요로 序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孔子가 書를 刪定했느냐 하는 問題, 序를 만들었는가 하는 問題 28篇以外에 또 몇가지 篇이 있었는가 하는 問題 등에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렇하다. 孔子가 書를 刪定했다는 說은 尚書緯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根本적으로 믿을 수 없다. 史記에서 「孔子序書傳」이라 말한 것은 다만 이러한 書傳의 次序를 배겼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지 결코 百篇에 대해서 序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다. 28篇은 孔子가 次序를 배긴 것이고 그 나머지는 當時에 모두 散佚되었던 것이다. 逸書의 總數는 통털어 計算할 길이 없다. 亡佚되지 아니한 것을 더하니 마치 맞게 百篇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漢儒가 28篇을 말하여 『尚書가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固陋하다는 評을免치 못할 것이지만 적어도 28篇은 孔子以後 가장 널리 傳習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나머지는 모두 조각 조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 百首의 書序에 秩序整然하게 羅列된 篇名은 도리어 반드시 信憑할 수는 없을 것이다. 朱熹가 孔子는 書序를 짓지 않았다는 問題를 提起한 以後 程廷祚도 일찌기 辨論한 바 있었고, 康先生이 지은 新學僞經考에 이르러서는 그 속의 一篇에서 書序의 僞作에 대해서 專門의 攻擊하고 自善한 理由를 들어 書序에 대해 死刑을 宣告했다. 이것은 閻若璩가 僞古文尚書에 대해 死刑을 宣告한 것과 같다. 書序는 劉歆의 作이 아니다. 劉歆以後의 사람이 지은 것인지 以前의 사람이 지

은 것인지는 現在로서는 알 수 없다. 아마도 秦漢間의 儒學者들 사이에는 孔子가 書를 刪定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後人들은 이에서 史記의 夏商周本紀와 魯世家的 말을 끌어 놓아 하나의 書序를 이룬 것인지도 모른다. 最少限 孔子의 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 第3章 詩

詩經은 古書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것이다. 우리들은 그의 眞僞를 研究할 必要는 없다. 다만 그의 (著作)年代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잠깐 세가지의 問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1. 全 詩經이 包含하고 있는 年代가 얼마나 오래가는 것——가장 오래 것은 어느 篇이고 가장 늦은 것은 어느 篇이며 그 中間에 얼마만한 年數의 差가 있는가 하는 것.

2. 三百篇 중에서 어느 時代의 篇數가 가장 많은가 하는 것.——어느 몇 篇을 한 組로 묶어 어느 時代의 作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3. 어느 때에 이와 같은 한 部의 詩經이 엮여졌는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詩經의 年代에 關한 것이다. 逐條하면서 討論하고자 한다.

#### A. 첫째 問題

詩經은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 사이에 지어졌는가. 함에 대해서는 古來로 많은 異說이 있다. 그 가운데 最後의 五篇——商頌은 現行的 詩序에 依據해서 말한다면 바로 商人이 祖上을 祭祀하는 詩인 것이다. 이 말이 確實하다면 詩經의 (著作)年代는 纔 일러서 商朝에 이미 存在한 것이다. 그래서 孔子時까지는 五六百年이 된다. 그러나 西漢以前에는 아무도 商頌이 商나라의 詩라고 말한 일이 없었다. 모두들 宋人의 作品이라고 하였다. 國語에 이러한 말이 있다. 『옛날 正考父가 商의 名頌(頌이라 이름한 것) 12篇을 周太師에게서 校를 받았는데 이것이 첫 首이다』(首正考父校商之名頌十二篇於周太師 以那爲首) 正考父는 宋나라의 大夫이고 孔子의 祖父이며 孔子의 아버지 嘉의 父이다. 그리고 周太師는 周室의 樂官이다. 「國語」의 뜻은, 商頌은 正考父가 지은 것으로 周太師에게 請하여 그 樂律을 바로 잡았다(校)는 것이다. 뒤에 毛氏 詩序에는 이렇게 말했다. 『正考父란 사람이 周太師에게서 商頌 1.篇을 得했다』(有正考父者得商頌十二篇於周之太師) 이것은 國語에서 말한 것과는 아주 틀린다. 「校」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것을 바로 잡아 (校) 주도록 請한다는 뜻이요, 「得」이란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사람것을 얻는 (得)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멋대로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纔 不幸하게도 이 뒤로부터는 모두 詩序의 말을 믿었다. 이와 같은 狀態로 宋朝에 까지 내려 오다가 宋朝에 와서야 비로소 이것은 懷疑하고 辨別에 힘쓰는 사람이 나왔다. 누구보다도 가장 明白하게 辨別한 이는 魏源이었다. 魏源은 그가 著述한 古詩徵에서 13個의 證據를 商頌 發微篇에 列學하면서 斷定하기를 商頌은 宋襄公時에 正考父가 商의 先祖를 祭祀지내면서 임금의 恩德을 稱頌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證據는 아마 徵微함을 免치 못할지는 모르지만 大部分은 맞는 말로서 足히 定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宋頌을 어찌 商頌이라 하는 것인가 左傳을 보면 魯僖公 22年條를 보면, 宋나라 大司馬가 말하기를 『하늘이 商을 버리신지 오래 되도다』라고 하였으니 宋의 詩를 商頌이라 하는 것은 조금도 怪異할 것 없는 것이다. 또한, 商頌의 第5首를 보면, 『魯伐荆楚』(荆楚를 쳐다)란 句가 있다. 적어도 商朝에는 荆楚란 姓名이 없었다. 楚는 周初에도 그냥 蠻夷였다가 周昭王以後가 비로소 中原과의 關係가 생긴 것이었다. 때문에 商頌은 完全히 正考父가 宋襄公을 稱頌한 것임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宋襄公이 齊를 따라 楚를 쳐서 勝利를 거두었으므로 自然히 이를 盛事로 떠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商頌만 그런 것이 아니다. 魯頌 또한 魯僖公이 齊를 따라 楚를 쳐서 凱旋한 以後 사람들을 시켜 만든 것이다. 뒤에 楊雄의 法言에서 말하기를 『正考父는 尹吉甫를 誦했으며 公子奚斯는 正考父를 誦했다』고 하고 있는데, 誦란「希慕」의 뜻이다. 吉甫와 奚斯는 모두 詩人이다. 詩經 大雅 烝民엔 『吉甫가 誦을 지었나니 淸風처럼 하도다』라는 句節이 있고, 魯頌 閟宮엔 『奚斯의 지은 바라』는 句節이 있다. 그들은 서로 서로「希慕」하였으며 또한 頌을 잘 지으니 正考父가 商頌을 지었다는 것을 疑心할 餘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漢人의 碑刻과 書籍에 이러한 일이 적혀 있는 것이 纔 많다. 그러나 商頌이 商의 詩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

비단 이와 같은 뿐만 아니라 商頌의 文體로서도 이것은 宋나라에 와서야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商朝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할 수 있다. 周頌은 西周人인 作品인데 纔 簡略하고 大部分이 韻이 없다. 그런데 商頌·魯頌은 小雅와 같이 纔 길며 句마다 韻이 있고 纔 音樂的이다. 例컨대, 『에혜요, 데혜요, 북을 두고 당당 치며 先祖를 위하자』(猗歟那歟 置我豸鼓 奏鼓簡簡 衍我烈祖) 殷武의 『저 累山은 높구나, 松柏이 둥글 둥글, 끊었다 옮겨졌다, 바야흐로 깎아서 빼앗는다』(陟彼景山 松柏丸丸 是斷是遷 方斲是度) 그런데 周頌 淸廟를 보면 『穆淸廟에서 肅雝이 나타나니 모



든 多士는 文을 잡는 德』(於穆清廟 肅雝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 『皇時에 周가 그 高山에 올라가서 山을 내려가 山嶽을 넘어 翁河에 이르렀다』(於皇時周 陟其高山 墮山喬嶽 允猶翁河)라고 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比較해 보면 하나는 읽기 쉬우나, 하나는 알기 어려우며, 하나는 韻이 있으나, 하나는 없는 것으로 그 差異가 아주 크다. 萬一 商頌이 果然 정말 周頌以前의 作品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렇지는 않은 것이다. 空洞한 文體로써 眞僞를 判別한다는 것은 꽤 危險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實은 그렇지 않다. 探偵小說을 보면 개가 냄새를 맡아 犯人을 찾아 내는 얘기가 있는데 文學을 研究하는 사람들은 개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 文體를 얼핏보고 眞僞를 가려 낼 수 있다. 비록 基準은 없더라도 그 基準은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淸廟로써 이에 比하면 알기 어려운 것이 앞서 나온 것이고 읽기 쉬운 것이 뒤에 나온 것일테니까 우리는 商頌은 宋詩이며 그 年代도 꽤 늦어서——齊桓公 宋襄公 때의 詩라고 斷定할 수 있다. 仔細한 것을 알고 싶으면 스스로 詩古微를 參考하면 될 것이다.

商頌의 年代가 이미 確定되었으니까 비로소 詩經의 年代가 앞당겨지지 아니하고 비로소 詩經年代를 論한 여러가지 問題를 討論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가장 이른것도 周初를 능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몇 篇은 周公時代일 것이며 가장 늦은 것은 萬一 毛氏의 詩序에 依한다면 곧 株林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株林이 夏南의 史實을 記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BC 589년의 일로서 그 뒤 47년만에 孔子가 난 것이다(551). 韓詩外傳에 依據한다면 곧 燕燕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燕燕은 衛定姜이 그 며느리(兒婦)를 大歸시킬 때의 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BC 558년의 일로서, 그 뒤 7년만에 孔子가 난 것이다. 韓詩의 說을 믿는다면 詩經의 맨 끝 篇은 孔子가 나기 7년 전에 나온 것이 된다. 다만 燕燕은 毛詩에서 衛莊姜이 만든 것으로 春秋初年の 것이라 認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면 詩經의 年代는 또한 40년이나 短縮된다. 齊魯·韓 三家의 詩는 毛詩에 比하여 오래된 것이고 信憑할 수 있는 것이며, 魯·齊에 있어서도 燕燕은 衛定姜의 詩라고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詩經은 BC 558년에 終結되었다고 認定하여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燕燕이후 孔子의 少年時節에 이르기까지 또한 詩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점 또한 큰 問題이다. 그 까닭은 詩三百首에는 無名人의 作品이 많고 大部分이 年代를 考證할 수 없다는 것을 擔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詩經 全部의 年代는 가장 빠른 것이 周公時이며, 가장 늦은 것이 孔子가 살아 있었을 때거나 좀 뒤일 것이다. 억지로 말한다면 가장 이른 作品은 武이며 가장 늦은

作品이 燕燕일 것이며 그 사이의 年代는 500년이란 相距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B. 둘째 問題

詩 300篇을 일일이 그 確實한 年代를 考證하려면 꽤 困難하다. 그러나 萬若 어떤 몇 篇의 詩가 어느 時代의 것이라고, 어느 時代의 詩가 많고, 어느 時代의 詩가 적다고 推定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 아니다. 今本의 詩經은 風·雅·頌 세 部로 나뉘어 있고, 風은 또한 二南과 十三國風으로 나뉘어 있고, 雅는 大小로 나뉘어 있고 頌은 또한 周·魯·商으로 나뉘어 있다. 從前에 詩篇의 年代를 考證한 이로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漢末에 鄭玄이 지은 詩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傳해지지 않고 있으며, 宋나라에도 歐陽修가 詩譜를 이어 지었고 王應麟이 詩譜를 모아 엮었으며, 淸儒도 계속 많은 책을 엮어 내었다. 鄭玄의 뜻에 依據하면 商頌이 가장 일찍이 나온 것이며 周初의 詩가 가장 많으므로 商頌의 價値가 으뜸이고 二南이 그 다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一派의 意見이며 齊·魯·韓의 三家는 그와 同調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의 主張은 錯誤가 많은 것이다. 例컨대, 關雎같은 것을 鄭玄은 文王時의 后妃를 讚美한 詩로 여기었는데 齊·魯·韓은 康王 때의 사람이 지은 것으로 치고 있다. 또 何彼穠矣 같은 것은 分明히 周桓王의 딸이 齊襄公에게 시집을 갈 때 魯人이 그를 노래한 詩인 것이다. 春秋 莊公元年에 그 事實이 明記되어 있고 이 詩에는 明白히 『平王의 孫子이며 齊侯의 아들』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分명한 證據가 된다. 그런데 毛鄭一派에서는 억지로 「平」을 太平으로, 齊를 平等으로 解釋하면서 文王이 딸을 시집보낸 詩라고 말하고 있으니 眞實로 可笑로운 일이다. 甘棠과 같은 것은 『伯을 불러 찾은바』라는 뜻이 있다고 하여 毛鄭은 곧이 召公奭이라 認定하면서 周初의 詩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公」「伯」은 顯著히만 것이다. 「伯」은 五伯의 伯이다. 詩에는 郇伯·申伯이 있는데 이는 모두 西周末期の 사람들이다. 詩 大雅 召旻에서는 召公奭을 불러 召公이라 하고 召伯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있다. 甘棠은 가장 일러야 西周末年の 詩에 不過하다. 從前 사람들은 文學의 價値를 잘못 認識하여 오래된 오래될수록 그 詩品을 높이 評價하였다. 가슴속에 이런 생각이 이미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덧붙여 어디든 誤解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二南에서는 江澹을 노래하였는데, 江澹은 西周初에는 아직도 充分히 開化되지 않았고, 東周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文化가 發生하였다. 前人은, 二南은 文王의 王化가 南國에 입힌 成果라고 말하고 있지만 其實은 文化가 落後

한 地方에서 어찌 이처럼 高尚한 文學이 産出될 理가 있는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二南이 西周末 東周初의 産物이라는 것을 充分히 斷定할 수 있다. 勿論 一時에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 文化가 서로 가까운 것으로 보아 그 時期는 100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前人은 이를 商末 周初의 100년으로 認定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일이다.

年代順으로 말하면 周頌이 가장 일르다. 周頌은 아마 武王의 作品일지도 모른다. 左傳 宣公 十二年에 楚莊王이 일찌기 周頌에 있는 武의 七章을 인용한 일이 있다. 武는 最少限 武王이 殷을 이긴 뒤에 지은 것으로 詩가운데 가장 일른 한 篇으로 比較의 理를 수 있는 것이다. 周頌 昊天有成命에는 『二后가 이를 繼承하였으니 成王이 敢히 平安치 못한다』는 句節이 있다. 그러므로 이 詩는 最少限 康王 때의 것이다. 그러나 文王時代의 詩는 한 篇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後人들은 반드시 文王時代의 것으로 認定하였으니 우스운 일이다. 먼저 主觀에 拘碍되어 그 일을 附會하는 일은 古代의 事物을 考究하는데 있어 큰 흠이며 결코 이와 같이 해서 안되는 것이다. 周頌은 周武王時代부터 康王時代의 詩로서 詩經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認定한다.

大雅 小雅에는 史料가 참으로 많다. 그래서 史詩라 부를 수도 있다. 萬若 鍾鼎文을 가지고 이에 비추어 본다면 前人이 알지 못하는 遺事를 얻을 수 있다. 그의 年代는 大略 西周末년에 나온 것이 十中八九이고 成康時代에도 12篇은 있으며 또한 一部分의 變雅는 東周初年の 것이다. 文體로 論한다면, 周頌은 뒤에 나온 것인데 도리어 質樸하고 二雅는 앞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風華할 理는 萬無한 것이다. 그러므로 大小의 二雅는 반드시 周頌以後에 나온 것이며 決코 文武王時代의 產品은 아닌 것이다.

이밖에 十三國風도 또한 二雅와 같다. 各各 國名으로 써 되어 있는데, 13國 중에, 檜는 西周末에 이르러서 唐에 滅亡되었으므로 檜風은 반드시 西周末年以前의 것이며 國風 가운데 어느 것 보다 年代가 가장 일른 것이다. 唐은 晉이 처음에 封을 받은 이름으로서 曲沃·莊伯이 나라를 빼앗고 封을 받은 뒤에는 晉이라고만 부르면서 唐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唐風은 반드시 魯桓公 이전의 것이다. 魏는 戰國時代의 魏가 아니라 魯莊公 때에 이르러서 晉獻公에게 滅亡 當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魏風은 魯莊公以前의 것이다. 이상세 國風은 比較의 일른편이며 그 나머지는 比較의 늦은 측이다.

鄘·邶·衛 세가지의 國風에 관한 問題는 상당히 複雜하다. 篇數도 또한 많아서 國風 全體의 3分之1을 占하고 있다. 名義上으로는 비록 三國의 것이지만 實際

上으로는 다만 衛國의 詩뿐이다. 詩속에 나오는 人名·地名은 事實은 모두 다 衛國의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衛風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鄘·邶은 무엇인가? 傳해지는 學說로는 衛國속에 있는 작은 國名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왜 三國으로 나누었을까. 王靜安先生은 鄘은 燕地이고 邶는 魯國이면 風詩는 이미 失傳되었는데 後人들이 알지 못하고 衛風의 一部를 나누어 鄘·邶에 준 것이라 解釋하고 있다. 이것은 比較의 理를 수 있다. 鄘風·邶風은 이미 없어졌다고 믿는다면 今本의 鄘·邶·衛 세 國風은 다만 衛風일 뿐이다. 옛 사람들의 說을 誤信하였으며 衛風을 三部로 나누어서는 못쓴다.

그 나머지 王·鄘·齊·秦·陳·曹·邶의 일곱나라와 衛風은 모두 春秋時代의 産物이며 그리 큰 問題는 없다. 다만 二南과 서로 比較해 본다면 또 問題가 생긴다. 地方文化가 發達하는 先後의 次序로 미루어보건대 二南은 아마 八國風보다 더욱 나중에 나온 것일테며, 文字의 優劣을 가지고 論한다 해도 二南은 또한 八國風보다 더욱이 華麗風華하다. 무릇 한 새로운 民族이 他民族의 文化를 받았을 때에는 異彩로운 創作이 恒常 나타나는 것이다. 二南을 風이라 이를 짓지 아니하고 南이라 부르며, 東·西·北이라 하지 않고 南이라하며 또한 江·漢 따위의 楚國地名이 있으며 文體도 뒤에 나오는 楚辭와 같이 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春秋後半期의 南方民族의 作品으로 認定해도 不可할 것이 없을 것이다. 宋나라의 王應麟은 일찌기 이와 같이 主張한바 있다. 그는 二南과 楚辭는 先後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라고 말 했는데 이것은 틀리지 않는 일이다.

以上을 綜合해 보건대 詩經年代의 第二問題의 解答은 이러하다. 周魏이 가장 일른 것으로, 周初의 作品이라는 것 大雅·小雅·檜風·唐風·魏風이 그 다음가는 것으로 西周末期에서 春秋初期의 產品이라는 것, 周南召南·王風·鄘風·齊風·秦風·陳風·曹風·邶風·衛風은 比較의 늦은 것으로 春秋時代의 產品이라는 것, 篇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春秋時代라는 것이다.

### C. 셋째 問題

위에서의 結論은 詩 三百篇은 周初로부터 孔子의 生時까지의 500年間의 作品이다. 그러나 어느 때 누가 엮었는가? 史記의 孔子世家에 依해서 말하면 上古의 詩는 3,000篇이 있었는데 孔子가 衛로부터 魯로 돌아 온 후 305篇으로 刪定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이 事實이라면 孔子는 64歲에 魯나라로 돌아 왔고 73歲에 世上을 떠났으니까 즉 그가 世上을 떠나기전 10年사이에 詩는 刪定한 셈이다. 그러나 孔子는 45歲時에 이미 講學하였

고孔子는 講學할 때 모두 詩를 썼었다. 詩는 그의 學校의 重要한 學科였다. 그런데 詩를 刪定하기 이전에 3,000篇을 가지고 講學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300篇을 가지고 했던가 論語에서는 恒常 말하기를 『詩三百을 읊었다』 『詩三百』이라 고쳤으니 이는 반드시 64歲以後에 한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로써 孔子가 弟子를 가르칠 때에는 다만 300篇만 가지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萬若 이러한 證據가 너무 薄弱하다고 한다면 「詩古微」에서 벗어나 말 했는가를 볼 수 있다. 詩古微의 夫子正樂編에서는 『夫子는 樂은 改正한 功이 있고 詩를 刪定한 일은 없다.……이제 國語가 引用한 詩 31條로 考究해 보건대……잃어진 것은 30分之1에 지나지 않고……左氏가 引用한 詩 217條 가운데 丘明이 스스로 引用한 것 및 孔子를 얘기한 말은 48條가 되지만 逸詩는 두條에 지나지 않았으며 列國公卿이 引用한 詩 101條 가운데 逸詩는 不過 5條였고 列國 宴享에서 歌詩를 贈答한 것은 不過 70條(譯註: 原文의 誤記인 듯) 였는데 逸詩는 3條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逸詩는 今詩의 20分之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古詩가 果然 3,000餘首가 있었더라면 后稷으로부터 殷周의 盛大와 幽厲의 衰退에 이르기까지 家家戶戶마다 읊었으니 지금 引用된 것의 10倍라야 할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이 說이 通하지 않는다는 것의 一證이 될 것이다. (以下 많은 證據가 있으나 지금은 다 들지 않는다) 假令 今詩는 孔子가 64歲 때 3,000篇으로부터 選定한 것이라 한다면 逸詩는 이 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 다만 50分之2 가 今詩 300篇속에 있는가 本來 孔子의 刪詩說은 孔穎達로부터 이미 懷疑에 오다가 魏源이 古詩微를 지을때에 이르러서는 特히 強力히 否定되었다. 이는 贊成할 일이다. 300篇은 本來 頌魯에 이르러 그치는데 商頌은 아마도 孔子가 덧붙였을 것이다. 孔子가 가르친 것은 다만 現在의 300篇 뿐이고 3,000篇 중에서 300篇을 뽑아 낸 일은 決코 없다.

그러나 이 300篇은 果然 누가 엮었는가. 이 점은 疑心스러운 것으로 남겨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일찍부터 定本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언제 定해진 것인지는 실로 斷定하기 어렵다. 가장 늦은 燕燕은 孔子가 出生하기 7年 전이므로 적어도 孔子가 어렸을때 누가 엮었을 것이다. 前人들은 周의 太史가 엮었다고 하나 그때는 이미 周朝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었고 周朝도 이 일을 勘當할 力量이 없었다. 大概 이 300篇은 魯國에서 이미 通行되고 있었던 책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이것은 證據가 있다. 左傳에는 吳나라의 季札이 魯에서 樂을 觀察한 것을 記錄하고 있는데 太史가 부른 詩의 篇名은 今本以外的 것은 없다. 魯太史가 쓰던 詩本은 今本과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것은

左傳을 지은 이가 後日에 追記한 말이라 하여 孔子 生前에 이미 定本이 있었다는 根據로는 不足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充分한 反證이 없는 限 이것은 아무튼 成立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을 따르다면 孔子와 詩經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相當한 關係가 있다. 아마 孔子는 詩篇의 順序에 대하여 마음을 썼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하나이다. 뒤에 와서 漢나라 사람들은 『四始』를 가장 무겁게 다루었다.——關雎는 國風의 시작이고 鹿鳴은 小雅의 始作이고, 文王은 大雅의 始作이고, 清廟는 頌의 始作이다.——아마도 孔子가 意識的으로 했것기에 孔門에서 이렇게 傳習해 내려간 것이리라. 둘째로, 商頌은 아마도 孔子가 덧붙인 것 같다. 商頌의 作者가 孔子의 先祖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孔子가 가장 힘들인 部分은 「册詩」에 있는 것이 아니라 「正樂」에 있다. 漢儒는 本來 孔子가 「刪詩」했다고는 말 하지 않았다. 司馬遷은 史記를 지을때 論語에 『孔子가 衛나라로부터 魯나라로 돌아온 然後에 正樂되고 雅頌은 各各 그 位置를 얻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孔子의 「刪詩說」이 비로소 나온 것이다. 其實은 論語의 이 한 句는 巴前의 詩詞·樂譜가 좋지 못하였기에 孔子가 衛나라로부터 魯나라로 돌아 와서 비로소 그를 改正했다 하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지 刪詩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孔子는 노래(樂歌)를 펴 좋아 했던 사람이다. 論語에 『孔子는 이 날 읊었으면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으니 그가 읊지 아니한 날에는 반드시 노래를 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孔子는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를 부를때 그가 잘 부르던 반드시 이를 反復케 한 뒤 여기에 和答했다』라는 말이 있으니 그가 노래를 잘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孔子는 齊에서 韶를 듣고 석달이나 고기맛을 몰랐다』라는 말이나 그 自身이 말한 『師 犢가 처음에 關雎의 亂(譯註: 終章)을 연주한 것은 참 아름다워서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音樂에 대한 趣味가 至極히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孔子世家에서는 일찍이 『詩百篇을 孔子는 모두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하였는데 이렇게해서 韶武의 소리에 合致시켰다』고 하였은즉 孔子의 詩에 대한 勞作은 樂譜를 創造하고 歌調를 改正하는 方面에 있었던 것이다. 從前의 詩는 아마도 모두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孔子에 이르러 비로소 樂譜를 지어 詩를 맞추었으며 그 뒤로 三百篇은 노래 부르지 못할 것이 樂譜를 지어 없게 되었다. 風雅頌의 區別에 대해서는 前人들의 見解가 一定치 않지만 나의 생각은 孔子가 定한 樂調의 固有名詞이며 音樂과 關係있다는 것이다. 墨字에

『儒者は詩三百을 읊고 詩三百을 타고 詩三百을 노래하고 詩三百을 춤추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孔門의 後人들은 孔子의 敎法을 아직도 遵守하면서 詩를 타고 詩를 노래하는 것을 공부로 삼았는데 詩는 노래로 부르지 못할 것이 없다. 윗 글을 볼 때, 孔子가 詩에 힘을 기울인 것은 全의으로 「正樂」이란 部分에 있었던 것이다. 後人들은 孔子를 推遵하느라 억지로 그가 刪詩했다고 하여 도리어 真相을 그릇치고 있다. 그러므로 詩三百篇은 孔子의 少年時節 또는 그 生前에 이루어졌다고 斷定지을 수 있다. 그런데 編者는 딱 指定하기 어렵다. 孔子의 詩에 대한 功勞는 樂歌에만 있을 뿐이다. — 세 가지 問題는 풀렸다고 看做된다.

끝으로 詩序의 眞僞와 年代 問題가 또한 論議의 對象이 된다. 今本 詩經은 每詩 앞에 몇 句의 小序가 있어 作詩의 緣故를 說明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詩序이다. 詩序는 漢書 藝文志에도 記錄이 없고 齊·魯·韓 三家의 詩에도 모두 없다. 다만 毛詩에만 있을 뿐이다. 後漢書 儒林傳에는 明白히 『衛宏은 曼卿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因하여 毛詩序를 지었다』고 말했다. 後人들은 이를 決코 믿지 않았다. 隋書 經籍志에서는 말하기를 傳하는 말에 詩序는 子夏의 作인데 毛公·衛宏을 거치면서 潤色되었다고 했고, 뒤에 와서 어떤 사람은 詩序의 첫 句는 子夏의 作이며 그 아랫 句節은 毛衛의 作이라고 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은 大毛公·小毛公이 나누어 지었다 했다. 또, 鄭玄은 한편으로는 子夏의 作이라고도 했고, 程子是 採詩한 사람들이 지었다고 말했고, 王安石은 詩人自身的 作이라고 했다. 實로 異論이 紛紛하다. 詩序를 無上의 地位에까지 推遵하고 있지만 本來는 假짜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南宋에 이르러서야 몇 分의 實證者—— 程大昌·朱熹·鄭樵—— 詩序에 대하여 猛烈한 攻擊을 퍼붓었으며 그의 價値가 零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모두들 이것은 衛宏의 作이며 全部 當치 않은 것이라고 嘆息했다. 朱熹는 初년에는 如前히 詩序로 推遵해 왔으나 晩년에 呂祖謙과 변론한 結果 비로소 鄭樵의 說을 따랐다. 그의 두두러진 見解로는 『詩는 序에 因해서 지었다』고 主張하는 것은 커다란 웃음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역시 철저히는 못했으니 그의 詩集傳은 그냥 詩序를 따른 것이다.

詩序는 도대체 어느 때의 作品인가 兩漢의 儒學者들은 「說詩」(譯註: 詩로 解說함)할 때 詩序가 있다고는提起한 적이 없다. 六經 輿論에는 『漢朝의 文字에는 詩序를 引用한 것이 없었다. 오직 魏나나 黃初 4년에 『曹共公이 君子를 멀리하고 小人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 있을 뿐이다. 大概 詩序는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行해졌던 것』이라 하였다. 王先謙은 이 說을 反駁하여, 말

하기를 左傳 襄公 29년에 있는 服虔의 解詁, 太尉 楊震의 疏 李尤의 滿刻銘, 蔡邕의 獨斷(譯註: 書名)에서는 모두 詩序를 引用하고 있다. 어찌 黃初 때에 처음으로 行해 졌다 하는가 라고 했다. 實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左傳과 詩序가 같은 것은 『아름다울진저 이를 夏의 磬이라 하느니』라는 한 句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물론 偶然의 一致이다. 或은 衛宏이 故意의으로 剽竊한 것이리라. 西漢一代의 文字에는 詩序를 引用한 일이 없으며 詩에 序가 있다고 말한 것도 없다. 服虔·楊震·李尤·蔡邕은 정말로 東漢의 儒人이지만 모두 衛公보다 좀 위의 사람이니 衛宏이 지은 詩序는 그들이 自然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後漢書에 이미 衛宏이 毛詩序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우리가 무엇하러 그의 功을 빼앗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때문에 그가 詩序를 僞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說詩家」가 詩를 지은 原因을 解釋하고 이를 簡막한 文字로 쓴 것은 漢人의 氣風이었기 때문이다. 齊·魯·韓 三家의 詩說은 비록 傳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몽아 볼 수 있는 3, 40條를 보면 詩序의 體裁와 비슷한 점이 있다. 毛詩는 이와 같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어찌 擔保할 수 있을 것인가. 毛詩에 대한 簡막한 얘기가 詩의 名篇에 모두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이 衛宏 손에 이르러서 비로소 全部 그에 依하여 小序를 얻게 되어 이 缺憾을 보태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實로 너무 멋대로였음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事蹟의 傳會나, 姓名의 錯亂이나, 詩意의 誤解……이같은 것은 詩를 읽는 者에 커다란 迷惑이 되고 있는 것이다. 實로 이것은 衛宏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한 허물이었다. 詩序는 南宋 諸儒의 攻擊을 거치고 나라 사람들 迷惑시키는 재주를 잃었다 뒤에 비록 清代의 한 두 사람의 漢學者들이 다시 한번 維持, 保護를 거쳤으나 그가 잃은 生命이나 威靈을 다시 救할 수는 없었다.

이 밖에 子夏의 詩說이나 申培의 詩說과 같이 說詩에 관한 僞書는 벌써 前人들의 論定을 거친 것이므로 지금 贅言을 얹지 않고 있다.

訂正: 前號(5) P. 17 左段上 10行중 「들이」 다음에 아래 部分이 漏落되었기 訂正함: 비록 三國六朝以後에 태어 났다 할지라도 그 僞造한것이나 僞造를 가려낸 책이 兩漢以前의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역시 우리들이 이를 論外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책을 주로 하였고 사람을 爲主로 하지 않은 것이다. (겨물어 없어) 여기서는 經書만을 于先 다루기로 한다.

## 第1章 易

易은 비록 完全한 책 같으나 內容은